

형제도 자식도 부양거절하자 비관

94. 8. 10

60대, 90대노모 살해

자식과 손자들한테서 90대 노모의 부양을 거절당한 데다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이를 비관한 60대 노인이 노모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9일 자신의 자식과 여동생 등이 부양을 꺼려온 90대 노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김홍두(69·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께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뒷산에 있는 자신의 부인 무덤가에서 어머니 임아무개(94)씨의 옆구리를 누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셋째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보상금 4천만원을 큰아들과 여동

생에게 나눠주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큰아들(47)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나 큰아들이 자신과 노모의 부양을 거부하자 지난달 23일 전남 여수 여동생(64)집으로 옮겼으며, 여기서도 부양을 거절당하자 이를 비관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82년 부인이 숨진 뒤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자신은 위장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면서도 노모의 세끼 식사를 꼼꼼히 챙기는 등 지극히 모셔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는 외출을 했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노모의 밥을 지어 올리는 등 보기 드문 효자였다"고 말했다.

광주/이수범 기자